

치유와 비상을 위해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지난 연말은 나라에 사건과 사고가 겹치며 예년과 다르게 어둡고 무거웠다.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억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지난해를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조차 버겁게 만들어버렸다.

12월 29일 아침 급히 달려간 공항은 처참했다. 사고 현장에서 일주일의 지냈다. 희생된 분들을 보내주지 못하는 유가족 곁을 도저히 떠날 수는 없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날들이었다.

처참한 현상이었지만, 사고 수습과 자원봉사, 추모 행렬은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나누는데 모아져 있었다. 수습에 헌신한 공직자, 전국에서 달려와 준 자원봉사자와 추모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가시지 않는다.

이제 사고는 수습을 마쳤다. 그렇다고 상처까지 아문 것은 아니다.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잠겼던 사고의 충격은 긴 시간의 치유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고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유가족의 의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꼭 제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전남도는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유가족의 충격과 아픔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가족을 돕는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부와 전남도의 당연한 도리이다.

유가족의 슬픔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객기 사고로 무안국제공항은 폐쇄되는 고통을 앓고 있다. 코로나19의 침체를 벗어나 국제선을 늘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던 공항이었다. 참담한 사고 이후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의 삶도 충격을 피해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직 망설여지고 무척 조심스럽지만, 무안국제공항의 운영 재개와 활성화,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우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항공기의 정비부터 관제 시스템, 비상 대처 훈련 등 항공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혁신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예산도 투입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재개장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긴밀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여 공항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항 이용률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이 계획에는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전남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항 활성화 전략을 실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해 사고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이는 공항을 이용객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전달하며 유가족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는 당연한 도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겼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무안국제공항이 안전을 신뢰받는 공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국민의 슬픔을 치유하고 무안국제공항이 새 날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참회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시지 않을 유가족의 슬픔에 거듭 애도하며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다.

社說

‘민주’ 넘어 ‘경제’ 위해 광주가 또 몽쳤다

76개 기관·단체 경제회복 다짐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골목상권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 경제는 이미 고물가, 내수 부진 등 궁정적인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 없다. 올해 ‘1% 저성장’이 예고됐지만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적 경제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

문제는 복합 위기를 돌파할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상황이다. 국가 혼란 속에 중앙정부에 기대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것조차 어렵다. 골목타임을 놓치지 전에 지역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 광주시와 지역 76개 기관·단체가 ‘원팀’을 구성했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등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를 개최했다. 경제주체들이 소비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키우자는 결의다.

광주시는 이미 내수 회복을 위해 광주 상생 카드 10% 특별 할인, 소상공인에 특별보증 자금 등 지원, 인공지능·미래차 미래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 회복,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행정의 노력과 지역 경제주체들까지 손을 맞잡은 모습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희망’이 보인다.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 없인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다. 내란과 폭력시위 등 반헌법적 세력에 맞서 국민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다. 80년 광주에서 주먹밥을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처럼 말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정쟁 속에 민생을 외면하고 있지만 광주는 또다시 몽치고 있다. 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고 힘을 모아가는 중이다. 한 손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쥔 양손잡이로 나아가는 광주의 대응에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는다.

‘예산’ 이유로 타당성과 효율 포기할 텐가

광주-나주鐵 효천역 경유해야

광주-나주 광역철도건설 사업에 광주시가 요구하는 ‘효천역 경유’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기존의 노선에 효천역이 추가될 경우 길이가 2.31km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2600억원 늘어나고 완공시기도 당초 2030년에서 2032년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돈’을 이유로 타당성과 효율을 포기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효천역 경유’ 노선을 제외한 채 광주-나주 광역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광주-나주 광역철도에 효천역이 포함될 경우 평균속도가 떨어지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효천역을 경유할 경우 노선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사업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용 인구 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시·도간 일상적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

한 광역철도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다.

반면 노선을 남구 주민 3만여 명이 거주하는 효천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광역철도 이용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광역철도가 상무역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결되면 광주시민의 교통 이용뿐 아니라 나주시민 역시 광주의 주요 도심 인프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노선변경으로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광역철도의 미래와 시민 편의를 감안하면 사소한 우려다. 되레 광주·전남 시·도민이 모두 불편한 광역철도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다. 단순하게 비용을 이유로 주민편의와 요구를 외면해선 안된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편의와 활용도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성급한 결정으로 무산시키는 것도 지역 전체의 불행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건설은 정부의 의지에 우선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뜻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제26 포병여단 대원들이 도네츠크 지역 전선에서 러시아 진지 방향으로 155mm 자주포 ‘보흐다나’를 발사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1925년 7월,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자서전 **권을 출판했다**. 공포정치의 당위성, 인종차별과 전체주의, 세계 정복의 야망을 낱말이 담은 책 **‘나의 투쟁’**이었다. 1923년 독일을 전복시키기 위해 일으켰던 뮌헨 폭동에 실패해 란츠베르크 교도소에 수감됐던 히틀러. 그에게 유대인은 교활한 장사수완으로 게르만 민족의 자본과 사람을 착취하며 사회를 썩먹는 존재였다. 의회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답이 없는 쓰레기들이었다.

자서전에서 히틀러가 가장 강조한 것도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아리아인(독일 민족) 지상주의였다. 인류 전체를 문화 창조자와 문화 지지자, 문화 파괴자로 나눌 때 문화 창조자는 오직 아리아인뿐이며, 그 밖의 비(非)아리아 인종은 기껏해야 문화 지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반면 문화 파괴자로 가장 증오해야 할 민족은 유대인을 들었다. 그에게 유대인은 ‘인류 문화의 적’이면서 ‘절멸의 운명만 부여된 민족’이었다. “민족의 피가 더럽혀져 가는 이 시대에 자국의 가장 우월한 인종 보존에 최선을 다한 국가가 언젠가 분명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 나오는 글이다.

히틀러는 권력욕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다. 20세기 가장 잔학한 인물이기도 하다. 3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빼앗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유대인과 공산주의를 극도로 싫어한 편협한 사고도 가졌다. 독일의 재무장을 역설하고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 프랑스와 동유럽, 소련과의 전쟁도 부추겼다. ‘국력은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있다’며 자신의 침략전쟁을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그의 극우적 이념과 탐욕, 망상은 수많은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의 힘이었다.

히틀러가 사망한 지 70년만에 ‘히틀러식 독재’가 지구촌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에 빔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히틀러 트럼프’라며 조롱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치식 경례를 한 일론 머스크를 두고 히틀러식 극우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과를 떠나 히틀러의 탄생은 ‘그에게 국가를 떠맡긴 국민의 책임이면서 히틀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국민의 어리석음이 만든 사필귀정’이다. 100년만에 소환된 히틀러와 나치는 혼돈의 21세기를 어떻게 바꿀까. 그들이 꿈꾸는 전체주의와 맹목적인 독재의 후폭풍이 눈에 선하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